

중국 임업 및 산림묘포시찰 보고

본회 상무 李 亨 雨

1. 일시 : 1997. 9. 22~10. 1(10일간)

2. 시찰자 : 이재석 회장 외 17명

3. 시찰목적

백두산 산림실태를 파악하여 통일후 북한의 조림 양묘에 관한 기초 조사를 하는 동시에 중국의 임업사정을 파악하여 특히 양묘에 관한 양국간 기술교류 및 산림종묘의 수출입에 관한 내용을 알아서 이에 대한 대처를 하고자함.

4. 시찰지

- (1) 중국 임목 종자 공사(산림 및 조경용 종자 묘목 취급 공사)
- (2) 심양(瀋陽), 연길(延吉), 백두산, 북경(北京), 계림(桂林), 상해(上海)

5. 조사개황

(1) 중국의 임업사정

중국의 산림면적은 261백만ha이며 총축적은 9,211백만 m^3 로서 ha당 축적은 평균 35 m^3 이다.

그래서 중국은 산림축적은 ha당 세계평균축적 72 m^3 의 절반 밖에 되지 않아 중국의 동북부 서남부 남방 지방을 제외하고는 나무가 없는 형편이다.

또 국토가 넓어 한대, 온대, 아열대, 열대에 걸쳐 수종이 목본식물의 종류가 8,000여종이나 된다.

그래서 산림대를 7개로 구분 모든 종묘의 배포구역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림은 그 용도에 따라 용재림, 방호림, 경제림, 신탄림, 특수림으로 구분되고 있다.

중국의 임업은 1949년 모택동의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직후 산림토지 개혁이 되어 임지는 국유화 되었다.

이 임업을 총괄하는 관서는 국무원 산하에 임업부가 있고 임업부장(장관) 밑에 8개 차장이 있으며 그 밑에 양묘국, 조림국, 임업교육국, 과학기술국, 국제협력국, 인사국, 임산국, 국유림국, 목재생산국, 제작국, 기획국, 공보국, 임업기계국, 물자보급국 등 14개 국이 있어 여기에서 중국임업을 총괄하게 된다.

또 중앙에 임업부 산하청으로서 야생조수청, 북부산림보호청, 북동부산림보호청, 북서부산림보호청, 남부임산사업부, 남서부임산사업부 등 6개 외청이 있다.

그리고 각성에는 임업청이 있으며 전국에는 2,000여개의 현(縣)이 있는데 각 현에는 임업국이 인민공사의 임업기술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임업센터가 설치되어 있

다.

중국의 산림이 황폐된 원인은 1940년대 항일(抗日)전쟁과 모택동이 중국을 통일한후 인민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개간을 하는등 내란에 의하여 산림이 파괴되어 1959년 이후 대자연의 재해로 농업생산이 저하됨에 따라 1970년대에 들어와서 임업을 농업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고 인민공사, 국영농장, 국영임장이 조림을 하여 1979년 산림법 시행 공포와 함께 3월 12일을 식수절로 정하고 전국에 4,200여개의 국영 임업장과 22만개의 회사단체 임업장이 조림, 육림 호림작업에서 크게 활동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목재 수급 사정을 보면 1981년의 경우 국내에서 총 4,942만³의 목재를 생산하였는데 이는 주로 흑룡강성, 길림성, 내몽고에서 생산하였고 목재의 자급율은 89%이며 부족량은 미국, 러시아, 캐나다, 말레이시아, 칠레 등에서 연평균 776만³를 수입 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에는 중국, 러시아간 양국 관계 개선으로 러시아 연방의 전나무, 잎갈나무를 흑룡강을 경유하여 값싸게 다량 수입할 전망이다 한다. (중국산보다 가격이 1/5~1/7임)

(2) 장백산(백두산)의 산림사정

1945년 2차대전이 끝나고 중국 백두산과 북한 백두산 관리권이 나누어지고 있어 중국에서는 장백산에서 중국 목재생산량의 10%이상을 벌채 수급하고 있다.

장백산의 처녀림인 분비나무, 잣나무등은 벌채이용되고 또 산불등으로 피해를 입은 적지에 잎갈나무와 자작나무가 천연갱신되어 주림목이 되어 있다.

그 주림목 사이에 벌채나 산불에 의한 피해를

면한 박달나무, 들메나무, 가문비나무, 황철나무, 왕느릅나무등이 산생되어 있다.

장백산은 중국에서도 산림보호(寶庫)이기 때문에 연길(延吉)에서 백두산까지 임도가 개설되어 있는데 포장을 하지 않았지만 임도로서는 1급 임도 시설을 하여 관리하고 있다.

인공조림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동안 과도한 벌채를 하여 중국정부에서 산림보호 특히 산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여 장백산에서는 금연구역이라 담배를 피우면 많은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북한 백두산도 북한이 중국에 수출할 품목이 목재임으로 백두산에서 매년 벌채 수출하기 때문에 임상이 중국 백두산과 같이 큰나무는 거의 벌채를 하고 벌채가능권에 있는 임지는 중국 백두산과 같이 유령림이 대부분이라고 들었다.

이 백두산의 산림생태계는 벌채와 산불등으로 후진적 천이가 있는가 하면 벌채 화전 적지에 천연 갱신이 용이한 자작, 잎갈나무의 전진적 천이가 진행되고 있는 산림의 생태계 파악에 표본이 되고 있다.

(3) 중국의 산림 양묘 및 종자 관리

중국의 산림양묘 및 종자관리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양묘는 주로 시(市), 현(縣)에서 직영하고 있다.

종자는 임업부 산하에 공사(公司)가 맡아서 국내수요를 공급하고 수출입을 맡고 있다.

우리 일행은 산림양묘를 하는 북경시 온천묘포와 중국임업종묘를 총괄하는 중국임목종자 공사를 방문 시찰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북경시 온천묘포(北京市 溫泉苗圃)

전체 묘포 면적이 45ha이며 시업수종이 100여 종이고 이를 전담 관리하는 직원이 52명이다.

중국은 인구가 많아 이들을 활용해야 함으로 기계화가 전연 되지 않고 있다.

한달 월급이 중국돈으로 400원 우리한화로 40,000원 임으로 하루 노임이 우리돈으로 1,300원 정도다.

우리나라 여자 1인 1일 평균 노임 26,000원에 비하면 1/2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약점인 노동의 저효율성 때문에 묘목가격은 인부임과 같이 비례로 저렴하지 않다.

참고로 향나무 1m 묘목이 중국돈으로 50원(한화 5,000원) 백송은 간장1cm에 중국돈 5원이면 간장20cm인 경우 100원(한화 10,000원) 은행 2년생 10cm 중국돈 2원(한화 200원) 유송 1.5m 중국돈 150원(한화 15,000원) 독일 가문비 2.0m 중국돈 1,000원(한화 100,000원)이고 보면 우리나라와 묘목가격은 비슷한 수준이다.

묘포시업기술면도 우리가 특히 더 배울 것은 없고 다만 중국은 국토가 넓어 종자배포구역을 7로 나누어 종묘 생산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과학적이라 하겠다.

나) 중국임업종자공사(中國林業種子公司)

중국 임업 종자 공사는 北京市 朝陽區 勝古南里甲34號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 임업부 산하 직영단체로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나무 풀씨 묘목 분재 등을 수출입하는 일종의 국영 산림종묘 무역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유평(兪平)사장의 안내로 묘포지 시찰은 물론 공사의 업무를 비롯하여 공사 냉장저장고에 저장된 종자 등을 볼수 있었다.

이 공사에서 취급되는 종자는 교목, 관목, 덩

쿨식물종자 318종을 실중(實重), 채취시기, 종자 배포구역별로 기록되어 세계를 상대로 수출을 하고 있다.

또 약용식물 30종 초본식물 종자 11가지도 취급하고 있고 묘목은 은행나무등 25종을 취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묘목은 값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종자만은 값이 일반적으로 저렴하다. 같은 위도상의 종자배포구역이라 하더라도 해발고등이 달라 육종 연구소 같은 곳에서 도입 검토가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된다.

지금 중국에서 고로쇠 단풍 종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바, 중국 종묘 배포구역 3구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우리 기후와는 크게 달라 주의를 요할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에서 잎갈나무 종자가 일부 상인에 의하여 낙엽송으로 둔갑하여 들어오고 있는바 이는 특별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5. 경제 및 사회상

사회주의 경제에서 일부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한 전환기에서 체제변화에 따른 진통이 여기 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홍콩 광주등지 경제 특구에서 신흥재벌이 중국 요소 요소마다 투자를 하여 빈부의 차가 격심해 가고 있다 한다.

중국이 아무리 땅이 넓고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공산주의치하에서 토지의 국유화로 농지의 경지 정리는 물론 사회간접자본 건설도 펍 용이 하나 중국 12억 인구중 이의 80% 가까운 8억 인구가 농민이라 산업구조 조정이 대단히 어렵다는 내용이다.

일반 국영기업체 근로자의 월급이 평균 중국돈으로 400원(한화 40,000원)으로서 자본주의 넘

새를 맡은 국민정서가 돈을 벌어서 잘 살아야 된다는 것 뿐이고 일반적으로 국민을 10등급으로 분류하는데 그중 8위가 학교 선생님 및 교수들이라고 하니 가치관이 재정립 되어야 할 사회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다.

또 우리나라 물가와 직접 비교 할수는 없지만 큰 소 한 마리에 1,000원(한화 100,000원) 개 한 마리 400원(한화 40,000원)으로 개고기가 비싼편이고 쌀은 80kg 한가마에 200원(한화 20,000원) 소고기 한근에 10원(한화 1,000원)이며 돼지고기 값도 소고기값과 같다.

6. 결론

금후 우리나라가 중국임업 및 산림종묘생산 수급과의 관계를 전망하건데 임업에 있어 중국도 목재 수입국이라 우리나라와 목재의 수출입은 어려운 형편이다.

다만 광활한 지역에서 활엽수 특수목재가 생산되어 값이 싸고 인건비가 저렴해서 우리나라 약기제작상이 합작 투자를 해서 목재공업분야에 한국이 참여해야 할 정도다.

조림보호 양묘 분야는 앞으로 막대한 조림을 해야 할 형편이므로 양묘의 합작투자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지금 양묘는 시·현등이 직영하고 있어 인건비 면에서 경쟁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묘목의 무역은 기후와 수목생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종자만은 주로 중국에서 수출하고 있는 것이 은행, 백송, 자목련, 중국목백합, 산사나무, 모감주, 이팝나무, 매실, 풀또기, 노무라단풍, 등나무종자임으로 우리나라 결실 흉년 때 일부 도입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